

“민주 의원도 문전박대” 예견됐던 ‘달빛철도’ 파행

국도위 법안소위 특별법 ‘발목’ “법안 발의해놓고 반대” 비판 “형평성 어긋나는 것 아니냐” 市 공무원 방문에 싸늘한 반응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 회의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스스로 발의한 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연관된 6개 광역시·도(광주·전남·전북·대구·경남·경북) 중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광주와 대구의 분위기는 황당하다 못해 싸늘하다. 이런 차가운 시선은 반대를 주도했던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소위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 공무원들의 방문에 면박을

주거나 의원 대신 보좌관이 상대하는 등의 ‘문전박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 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공청회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의 방침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의원 한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조오섭 의원은 “답답하다. 다같이 하기로 대승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여당이 판지를 걸었다”면서 “양당 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외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법안 자동 폐기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 반대 의견은 없냐는 질문에는 “특정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정권은 여당에 있는 것”이라며 “여당만 오케이하면 야당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선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광주·전남이 텃밭인 야당에서조차 면박 받는 사업인데 되겠다’ 라면서 광주·전남 지역 의원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분위기다.

실제 광주시 한 공무원은 “최근 몇주간 광주의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만났다. 광주는 야당을, 대구는 여당을 만나는 전략이었다”면서 “야당인 경우 광주·전남을 터전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호의적인 줄 알았으나 얼굴이 벌개지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공무원에 따르면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을 만나기 위해 오전에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어서 광주행 복귀를 미루면서 한참을 밖에서 대기

한 뒤 수시간만에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뜸 “법안에 발의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냈고, 광주시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나와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공무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내려가는 동안 서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때부터 법안 통과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의원실에 방문했는데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고 보좌관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기획재정부부터 설득하고 오라”는 엉뚱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를 설득해달라고 의원실을 방문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면서 “언제부터 광주가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위치가 됐나 싶어 괜히 울컥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달빛철도와 관련 여당 측이 “연내 통과를 막고 내년으로 미뤄서 법안 폐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니 만큼 알아서 자르진 못하겠지만 미루고 미뤄 자동 폐기를 노리는 것 같다”면서 “당 차원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전박대와 관련해 광주 권리당원인 명모(49)씨는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 한명도 당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며 “이러고도 총선에서 표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탄탄하기도 했다.

광주는 현재 매일 대구시 관계자와 소통하며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 김석용 교통국장은 “다행히 대구와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이는 흥준표 시장의 강한 의지인 것 같다”면서 “광주시, 대구시 모두 어떻게 해서라도 ‘연내 통과’를 하자는 분위기기 때문에 정치권이 협조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내년 전남에 동남아 관광객 몰려온다

전남도, 특화 관광상품 마케팅 설날 연휴 베트남 전세기 운항 라오스 현지 전남 인지도 올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의 특화 관광상품 마케팅 노력으로 내년 3월부터 전남을 찾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재단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하고 ‘2024년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설명회에서 전남도와 베트남 협력 여행사인 에이 앤드 티는 내년 설 연휴 기간에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하고 관광객 1000명을 목표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방문지는 신안 퍼플섬, 순천 낙안읍성, 목포 근대역사관 등이다.

현지 여행업계에선 겨울철 특화 프로그

램으로 준비한 영암·보성 딸기 따기, 곡성 눈썰매, 나주·목포 짬짬방 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퍼시픽항공, 베트남항공, 비엠펙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한 가운데 나트랑, 달랏 등 4개 노선에 6편을 운항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 연휴에는 해당 노선의 관광상품과는 별개로 다낭, 호치민 등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500여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베트남 관광객 700여명이 방문해 전남의 매력을 체험하고 갔다.

전남도와 에이 앤드 티는 2024년 봄꽃 축제를 겨냥해 4월부터 6월까지 하노이 전세기 상품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성사되면 500여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

‘2024년 관광상품 설명회’는 신규시장인 라오스를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등이 7일 진도 임회면 남도리에서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됐다. 전남도 제공

라오스는 신규시장이지만 수도 비엔티엔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콕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태국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

라오스를 대상으로 한 전남 관광상품은 12월 중 출시·판매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전남을 찾는다.

무엇보다 지난 11월부터 라오항공이 라오스 비엔티엔과 무안국제공항을 운항하고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김영록 지사가 베트

남 현지 전남 관광 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정기편 업무협약’과 무사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까지 3000여명의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최황지 기자

ATOM::S

이제 마케팅 고민 끝내드립니다.

소상공인 | 스타트업을 위한 **AI 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 ATMS**

→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줄여주고 마케팅 효율을 높여주는 AI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 (주)아토모스는 누적 집행 광고비 200억의 노하우를 담은 솔루션으로, 감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 기반 마케팅회사입니다.